

“재외동포청, 한글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 돕다”

- 8월14~16일 캘리포니아 교사·학생·학부모 연수회서 한목소리 평가
- 실리콘밸리·뉴비전·다솜 3개 한글학교서 진행...애틀랜타 이어 두번째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8월 14~16일(현지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‘주말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연수’를 개최했다.

○ 연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솜한국학교(교장 최미영)와의 협업으로 쿠퍼티노에 있는 실리콘밸리한국학교, 밀피타스에 있는 뉴비전한국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됐다. 지난 4월 애틀랜타 연수회 이후 두 번째다.

○ 차세대 정체성 교육의 산실인 한글학교의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에는 한글학교 교장·교사 150여 명을 비롯해 학생 70명과 학부모 80명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.

□ 연수는 ‘AI 디지털 시대의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’이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최신 교수법과 교실 운영 전략 등으로 진행됐다.

○ 14일에는 실리콘밸리한국학교(쿠퍼티노)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과 가정에서 효과적인 한국어·역사문화 교육 방법에 대한 두 개의 강의(‘그림과 이미지로 배우는 한국어와 우리 역사’(김차명 광명서초등학교 교사), ‘웃음과 감동이 있는 한국어 수업’(강용철

경희여자중학교 교사)가 열렸다.

- 다솜한국학교에서는 14일과 15일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설계와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일대일 맞춤형 코칭이 진행됐다.

□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5일 뉴비전한국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‘광복 80주년, 한국을 빛낸 디아스포라’를 주제로 강연했다.

- 이어 김차명 교사와 강용철 교사가 재외동포 학생(4-6학년 25명, 6-8학년 36명)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시범 수업을 실시했다.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수업 경험을, 교사들에게는 시범 수업 참관을 통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.

□ 16일에는 다솜한국학교에서 교장 및 운영진 대상 간담회와 교사 대상 집중연수(한국어로 만나는 정체성 교육과 미래, 인물을 통한 독립운동 이야기, AI와 에듀테크로 함께 배우는 초등한국어 등)가 강연과 연계한 실습 수업 형태로 열렸다.

- 교장 및 운영진 대상 간담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 교사 대상 집중연수는 북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진 대규모 대면 행사였다.

□ 연수에 처음 참가한 학부모들은 “아이들을 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얼과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중요성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.

- 또한 참가자 대부분은 “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이 현지 학교에 직접 찾아와

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, 학교 운영자 등 한글학교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연수 방식”이라고 평가하면서 “앞으로도 같은 형식의 연수가 지속해서 열렸으면 좋겠다”고 희망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현지 한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사들에게는 실제 활용 가능한 교수법을 안내하고,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부모 대상 특강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 교육 방향을 공유하는 등 한글학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※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주말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연수 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	책임자	과장	이희경	032-585-3207
		담당자	주무관	권주희	032-585-3211